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 밑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교대를 꺾고 원수놈들의 피물은 침략력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긴 영웅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위대한 전승명절을 맞이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 서홍찬동지, 노광철동지, 조남진동지, 량철성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강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향연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에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

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

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율음홀, 시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백두산천대로 길이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념원이요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기어 이 성취하고야말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애짚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애짚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애짚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대표단 단장인 싸미 모함메드 메즈크 메즈크

총서기가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전승절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26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는 우리 조국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마련해주시고 숭고한 도덕의리로 조국수호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혁명선열들의 삶을 끝없이 빛내여주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2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태양의 궁전을 찾은 그들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고 전대미문의 반제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이 끌어 오신 백두산천출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절세위인들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여온 자랑스런 선배들을 긍지높이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어섰다.

그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굳건히 계승되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가 앞당겨지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심이 어려웠는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저지도

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며 후대들에게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과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피줄기로 남겨주어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백승의 전통을 빛내어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